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

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9월 17(수) 11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부 입지총괄과 박영삼 과장(044-203-4430), 이중엽 사무관(4456)
노진만 사무관(4404)

노후 산단을 '스마트 혁신 산업단지'로 전환, 창조경제 거점으로 구축

- 산업부, 9.17.「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」열어 -
- 스마트 · 친환경 기반 구축 등 4개 중점 과제 발표 -
- 산업단지 리모델링에 총 2.3조원의 민·관 투자 추진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**'14. 9. 17. (수) 11시 G밸리비즈플라자**(서울 구로구 소재)에서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을 열고, 노후 산단을 **'스마트 혁신 산단'**으로 전환해 **창조 경제거점**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.

○ 기념식에서 윤상직 장관은 스마트 혁신 산단 구현을 전방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**① 스마트·친환경 기반 구축, ② 입주기업의 연구·혁신 역량 강화, ③ 노후단지 리모델링 신속 추진, ④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**의 4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.

○ 윤 장관은 그간의 산업단지 혁신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독일 '인더스트리 4.0(Industry 4.0)', 미국 '첨단제조 파트너쉽' 등 주요 선진국들이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, 우리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생산성이 낮고, 청년들이 산업단지 내의 제조업 취업을 꺼리는 등 제조업 혁신에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이번 정책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취지를 말했다.

○ 이날 행사는 1964. 9. 14.「수출산업공업단지조성법」이 제정되고, 구로공단(現 서울디지털산업단지)이 착공되기 시작한 지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"산업화의 주역에서 창조경제의 거점으로"라는 표어아래 산업단지 과거 50년 성과를 조명하고, 미래 50년 혁신을 준비하는 의미로 산업단지 기업인, 근로자, 정부, 국회, 지자체, 유관기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.

○ 기념식과 함께 박환우 성호전자(주)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지난 50년간 산업단지 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에 이바지한 **산단 입주 기업인 11명**을 대상으로 **산업훈장·포장 및 표창**을 수여했다.

< 스마트 혁신 산업단지 구현을 위한 4대 추진 과제 >

① 스마트·친환경 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성과 에너지효율을 높여.

○ **'20년까지** 3D 프린팅 기술과 산업용 인터넷 등을 활용한 **스마트공장 1만개**를 **혁신 산단 중심으로 확산**하여 입주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인다.

* 제너럴 일렉트릭 (GE)은 산업용 인터넷 기술을 통해 테블릿 PC, 스마트폰 등으로 생산 공정을 실시간 원격 제어함으로써 제품 리콜 비율 20% 감소

○ **'17년까지 24개 산단에 클라우드 기반 정보기술(IT)서비스를 도입**해, 중소기업들이 전산 업무 수행을 위해 개별적으로 하드웨어(HW)·소프트웨어(SW)를 구매·설치하는 대신 공통 플랫폼을 통해 **클라우드 방식으로 함께 이용**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기술(IT) **활용 비용 절감**을 지원할 예정이다.('15년 2개 산단에 시범 적용)

* CJ의 경우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으로 HW·SW 구축비 20% 절감

○ **'17년까지**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등을 통해 **10개 산단에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**(FEMS,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) **적용**하여,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, 열, 가스 등 소비량을 센서와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원격 제어함으로써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한다.

*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우 에너지관리싯스템(EMS) 적용 이후 에너지사용량 10% 절감

○ 폐열, 부산물 등 자원을 재활용하는 **생태산업단지를 '14년 46개 → '19년 150개로 확대**하여 산업단지를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낮춘다.

* 철스크랩 공급업체 A의 경우 원료생산비의 70% 절감

② 입주기업의 연구·혁신 역량을 강화.

○ **'17년까지 17개 산업단지**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으로 구성된 **산학융합지구를 지정**하여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 인력의 공급을 확대한다.

○ **'17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혁신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**하여 기업 경영, 시장개척을 지원한다.

○ 산단 기업들과 인근에 소재한 테크노파크, 출연연 분원 간 공동 연구개발(R&D) 협력 강화한다.

③ '리모델링 사업'을 신속히 추진해 민관 공동 투자를 촉진

○ **17개 혁신단지 선정 일정을 1년 앞당겨 '16년까지 완료**하는 등 '리모델링 사업'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.

- 4개 단지를 올해 3월 이미 선정했고, **하반기에 3개 단지를 선정**하고, '15년 8개, '16년 2개 선정을 완료한다.

○ **'17년까지** 1.2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단혁신펀드를 투입하고, 용도규제 완화 등을 통해 1.1조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함으로써 **총 2.3조원의 투자를 이끈다.**

④ 부처 간 협업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.

○ **'17년까지 산단형 행복주택을 1만호 공급**하고, 어린이집과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 등을 확대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.

○ **산업단지내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관할 권역 확대** 등을 통해 산업단지 안전관리도 강화한다.

〈 정부 포상 내용 〉

□ 정책 발표 후 동탑훈장 1점, 철탑훈장 1점, 산업포장 2점, 대통령 표창 2점, 국무총리표창 5점 등 **총 11점의 정부 포상**이 수여했다.

□ **동탑산업훈장**은 국내 1위 필름콘덴서* 기업으로서 서울산학기술포럼 등을 통해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는 등 구로단지의 첨단화에 이바지한 **박환우 성호전자㈜ 대표이사**에게 전해졌으며,

* 필름을 금속으로 도금한 후 돌돌 감아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부품으로 전자제품에 널리 활용되는 부속품

□ **철탑산업훈장**은 녹산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해안방제사업, 출퇴근 애로 해소 등 단지 환경 개선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**이남규 광명잉크제조(주) 대표이사**에게 수여했다.

□ **산업포장**은 대구 성서단지 내 'IT전기전자 미니클러스터' 초대 회장을 맡아 기업 간 협력을 이끄는 등 클러스터 사업을 빨리 자리 잡는데 이바지한 **김창호 (주)아진엑스텍 대표이사**와

○ 텐트 폴대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서 그린 아노다이징* 신공법을 적용하여 공장을 청정화하면서 내외부를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고, 로비음악회 정기 개최하는 등 주안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선도한 **라제건 동아알루미늄(주) 대표이사**가 받았다.

*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막기 위해 코팅과 도색 작업을 하는 것으로 기존 화학공정에 비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저감되어 배출되는 생산 공법임.

□ **대통령 표창**은 구로공단 근로자 출신으로 연매출 100억 원대 기업으로 자수성가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패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공헌한 **김태주 에이-원 대표**와

○ 전량 수입했던 자동차용 할로겐 전구의 국산화와 남동산업단지내 자동차부품 업계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한 **채희철 ㈜디에이치라이팅 대표이사**에게 수여했다.

□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“출범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산업단지가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서 **제2의 도약을 하는 계기**가 되어야 한다.”라고 강조하고

○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·관 협력, 관계부처 협업 등 **국가적인 역량을 총결집**해 **스마트 혁신 산업단지를 조기에 구현**하고, 이를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, 경제 활성화를 앞당기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.

【 참고1 】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 개요
【 참고2 】 산업단지 과거 50년 성과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이중엽 사무관(☎ 044-203-445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 개요

1. 행사 개요

○ (배경) 「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」 제정('64.9.14) 50주년으로, 최초 지정산단인 구로공단에서 기념식 개최

○ (일시·장소) '14. 9. 17(수) 11:00~11:31, G밸리 비즈프라자 1층

○ (슬로건) 산업화의 주역에서 창조경제 거점으로

○ (참석자) 유공자, 정부, 국회, 기업, 공공·유관기관 등 400여명

구분	참석자
산단 유공자	정부 포상 수상자
정부 · 국회	산업부 장관, 지역위 위원장,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장 등
기업, 단체	입주기업, 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 등
유관기관	KOTRA, 산업연구원,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
기타	언론, 금융, 대학, 前 구로공단 근로자 및 출신 유명인사 등

2. 세부 진행

개식선언 → 국민의례 → 기념사(산단공 이사장) → 영상물 상영 → 산업단지 혁신 현황 및 과제 발표(산업부장관) → 유공자 포상 → 축사 → 폐식 선언

○ (영상물) 한국의 산업단지 50년 성과 및 주요순간 회고, 미래 50년 창조경제 거점으로 재도약하는 혁신 비전 제시

○ (산단 혁신 현황 및 과제) 그간 정책 이행을 평가하고,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혁신 중점 추진 과제 발표

○ (유공자 포상) 훈장 2, 포장 2, 대통령표창 2 등 총 6명 단상 수상

○ (축사) 산업단지 50년의 성과,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거점화 전략

참고2 산업단지 50년 발자취 및 성과

◇ 지난 50년간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 변화에 맞추어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으며, 국내 생산, 수출,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

□ 산업단지의 50년 발자취

○ ('60년대) 구로에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, 공업입지 여건 개선

* 구로공단의 대표 산업이었던 섬유·봉제산업은 1960년대 후반부터 10년 이상 산업단지 연간 수출액의 평균 44%를 차지했고, 국가 전체 수출액의 10%를 담당

○ ('70년대)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구미(전자), 창원(기계), 여수(석유화학) 등 동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업기지 조성

○ ('80년대) 기술집약적 산업 육성과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중소기업 전문 산업단지를 반월·시화, 남동 등에 조성

○ ('90년대) 지역균형개발 위해 대불, 군장, 아산 등 공업단지 지정, 대전, 광주, 부산, 대구 등 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, 산업단지로 명칭 변경

○ ('00년대) 구로산단에 아파트형 공장 집중 건설로 국내 최대 IT밸리 조성, 공업배치 정책(H/W)에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(S/W) 중심으로 정책 전환

○ (현재) 현재 1,033개 산단 지정으로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

□ 산업단지 조성 성과

○ 지난 50년 우리나라 수출 전진기지로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으며, 후발개도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인 정책 성공사례로 발전

* '13년 기준 8만개 기업 입주, 201만명 근무, '12년 기준 국내 제조업에서 고용의 50.6%, 생산액의 68.6%, 수출의 80.7% 차지

< 산업단지 현황('13.12월 기준) >

구 분	지정수(개)	면적(천㎡)	입주기업(개사)	고용(천명)	생산(천억원)	수출(억불)
국 가	41	793,561	49,545	1,155	6,741	2,689
일 반	528	507,148	24,331	706	3,089	1,489
도시첨단	11	2,272	224	2	2	0
농 공	453	72,828	6,447	148	492	118
계	1,033	1,375,809	80,547	2,011	10,323	4,297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